제주4.3 불교 희생자 추모 본격화

관음사,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 발족

오는 19일 창립총회 및 법회
사찰 피해 · 스님들 희생 조명
불교 차원 사업회 발족 처음
희생자 위령 · 피해 조사 추진
유적 보존 · 역사교실 운영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4.3항쟁 당시 희생된 스님들을 추모하고 사찰 피해 상황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는 7월 19일 오후 3시 관음사 선센터에서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이하 사업회)' 창립총회 및 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제정과 임원 구성, 사업계획들이 확정된다.

이번 사업회 창립은 제주 4.3항쟁 당시 불교계 피해 조사와 희생자 추모를 위한 첫 법인단체의 발족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제주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민중 봉기 및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약 7년여 동안 비공식적으로 약 3만여 제주주민이 희생됐고, 강경진압에 의해 제주 중산간 마을의 경우 기옥 95%가 전소됐다.

이런 겁화를 불교도 피해가지는 못했다. 스님 16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고, 37곳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완전 전소된 곳도 18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피해 스님들은 사찰 경내에서 총살을 당했고,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은 스님도 있다.

특히 스님들의 희생은 막 태동하고 있던 제주불교계로서는 뼈아픈 손실이었다. 당시 제주불교를 대표한 승려인 이일선은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정동원부에서 활동하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인 의장단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광사에서 예비검속돼 산지포구서 수장됐다.

표훈사 중향강원 강사로 활동했던 이세진 스님은 1948년부터 민중들과 함께 무장대로 활동했다. 무장대 지휘부였던 이덕구 등 15인과 관음사서 기거하며 활동했는데 군 · 경 토벌대에 잡혀 1949년 7월 산지 앞바다서 수장됐다.

화엄사 제주포교소 포교사로 제주 순회포교 활동을 전개했던 이성봉 스님은 1949년 10월 자신이 주석하던 금봉사로 피신 온 마을주민들을 숨겨주다가 토벌대의 총에 희생됐다.

이들 스님 대부분은 해방 이후 친일불교를 청산하고 불교를 개혁하고자 했으며 사실상 제주불교계의 지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주 4.3항쟁 당시 종교계 피해 중 90%가량이 불교에 집중돼 있었지만, 사찰 피해와 스님의 희생은 크게 조명되지 못했다.

이에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지난 3월 30일 봉행된 관음사 4.3희생자 추모제 이후 사업회 창립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4월 3일 준비위원회 구성 작업이 착수됐다. 5월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회의와 6월 창립발기인 회의 등이 잇달아 열리며 사업회 창립 준비에 매진했다.

사업회는 4.3 당시 최대 격전지이기도 했던 관음사를 중심으로 각 종단 · 사찰 · 신행단체 ·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는 4.3 희생자 추모와 피해 조사를 위한 범불교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사업회는 희생자 조사 · 명예회복과 공동체 복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희생자 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기초 자료 수집 · 자료 전산화 · 신고 창구 상설화 등을 추진한다. 희생자 위령 · 추모사업으로는 △년1회 합동위령재 △년1회 순교 스님 위령재 △4.3 천도 축원 생활화 △유적지 위령비 건립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4.3 유적지 가치 보존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된다. 유적지 가치 보존 위한 연구 용역 및 정비가 추진되며 유적지 지정 등록을 위한 사유지 매입도 계획 중이다.

또한 인권 · 평화에 대한 교육을 위해 청소년 역사교실을 운영하며, 유적지 참배 대중화를 위한 순례길과 관광벨트 조성도 추진된다.

희생 유족 복지와 유족회 활성화를 위해 △추모법회 활성화 △어려운 희생자(유족) 돕기 운동 △4.3 트라우마 치유 명상 · 상담센터 운영 △4.3불자 유족상 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제주는 4.3으로 인해 많은 도민과 불자, 스님들이 희생됐으며 사찰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불교 관련 피해 조사와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업회 창립을 통해 당시 불교계의 피해를 진상 조사 · 규명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의 공동체로의 제주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족 불교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가 남북불교교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7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수강생을 7월 26일까지 모집한다. 7기 과정은 8월 1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1일과 28일, 9월 4일과 19일에 통일문제와 동북아 국제정치를 주제로 4번의 강좌가 진행된다. 강의서는 서호 통일부차관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망과 과제', 이종석 前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동기와 북한 경제', 정세현 前통일부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마지막 강의서는 '시대정신으로 평화통일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토론회가 펼쳐진다.

모든 강의가 끝난 뒤에는 9월 21~24일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연길-용정-백두산-왕청-도문 등) 순례가 이어진다. 순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만주지역 항일운동 현장을 방문하는 코스로 마련됐으며, 신청자 중 선정된 수료생이 참여할 수 있다. (02)720-0531 윤호섭 기자

전국비구니회 첫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7월 27일, 17개 지회 함께 장병 4000명 대상

'절오빠 프로젝트' 추진해
후원금만 4000만원 모연
회장 육문 스님 법사 나서

비구니스님들의 공식기구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군불교의 산실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주관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오는 7월 27일 오후 2시 30분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17개 지회와 함께 군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수계법회는 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의 임기 말미에 회향의 의미를 담아 준비한 것으로, 비구니회가 4000여 명의 장병들이 모이는 호국연무사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여법한 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절오빠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비구니스님들의 모연을 실시했다.

모연에는 17개 지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비구니스님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표액인 2400만원을 훨씬 웃도는 4000만원이 모연됐다. 이에 비구니회는 연무사 기본간식비용 1000만원과 특별간식비용 1200만원, 비구니 군승 · 민간인 성직자 지원금 1200만원 등을 편성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수계법회를 준비했다.

특히 특별간식으로 제공할 햄버거에는 법구경 문구를 담아 나눠줄 예정이며, 만(卍)자 펜던트 등 다양한 선물도 마련했다.

법회서는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이 계사로 나선다. 다만 법문은 20대의 젊은 장병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DJ로도 유명한 정목 스님이 맡는다. 법회 이후에는 스님들이 부대시찰을 하고, PX에 들러 장병들의 생활문화를 접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제11대 집행부는 해인사 자비원 인수를 비롯해 명사법계품서식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참된 회향을 위해 군장병 수계법회를 계획했다"며 "청년불자 양성에 모든 비구니스님들이 성원을 보내준 만큼 부족함 없는 법회로 장병들의 신심 증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 경험, 작품으로 보답할게요"

포교원, 일러스트 · 동화작가 템플스테이 성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이하 포교원)과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6일부터 7일까지 화성 용주사에서 '작가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일러스트, 동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작가들은 예불, 108배, 명상, 포행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였으며, 각 분야 작가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스님께 해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시간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손을 닮은 관세음보살 손 모양(수인, 手印)을 그리며 불보살의 깨달음을 염원하는 만다라 명상시간이었다.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장정윤 작가는 "새로운 경험과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배움으로 다가왔다.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잘 비워내고 잘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됐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번 템플스테이로 많은 작가들의 작업 속에 종교를 뛰어넘는 불교의 가치가 녹아들기를 바란다. 작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작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꾸준히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웹툰 및 만화 작가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직지사, 신인문학상 · 사명대사 백일장 공모

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주지 법보)가 제2회 직지신인문학상과 사명대사 추모 백일장을 공모한다.

직지신인문학상은 시(3편 이상) 부문과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부문으로 공모한다. 시 당선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단편소설 당선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공모기간은 8월 20일까지다.

당선작은 현대불교문인협회가 발행하는 문예계간지 〈불교와문학〉에 실리며, 당선자는 기성 문인으로 우대한다. 전국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명대사 추모 백일장은 시(1편 이상) 부문과 산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부문으로 나뉘며, 백일장 주제는 △불꽃 △포도 △매듭 등 3개다. 경북도지사상인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이, 김천시장상인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사명대사 추모 백일장 수상작 역시 〈불교와문학〉에 실리며, 두 시상식은 9월 6일 오후 6시 직지사 만덕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054)429-1700 신성민 기자

